

# 사회·불자들 위한 희망의 등불

## 2011 결산 불교계 보시 Best5

10년 넘는 꾸준한 보시  
교계 보시 문화 더 확산되기를

2011년에도 불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나눔·보시행을 펼쳤다. 그 가운데서도 꾸준히, 또는 눈에 띄게 기부와 보시를 한 불자들이 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사회와 불교계는 아직 따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보시행을 거울삼아 2012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보시에 동참하길 기대해본다.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은 2001년부터 매년 2~3명의 불교단체 활동가에게 지원금을 마련해 전달해오고 있다.

올해 지원금을 전달받은 활동가는 간健康和 산스리 스님(구미마하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 스리랑카)과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 등 4명으로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 씩 전달됐다.

동출 스님은 만선신부전증으로 복막투석을 받는 투병 중에 있다. 하지만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직을 맡으며 열악한 불교출판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20년 넘도록 묵서포교에 힘써오고 있다. 사비를 들여 출판 일을 멈추지 않는 스님은 그동안 모은 기금을 매년 불교NGO활동가들에게 지원하는데 액수만 4600여 만원에 달한다.

동출 스님은 “2001년부터 지원금을 전

달해왔다. 10년간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일해 온 활동가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능인정사 주지 법경 스님은 서울시 광진구의 ‘포대화상’으로 불려진다. 법경 스님은 1986년 포교당을 열었을 때부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이웃들에게 매년 500포대(20kg)의 쌀을 나눠주고,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왔다. 또 스님은 2005년 건국대병원급 새 병원 개원이후 매년 1000만원의 병원비를 지원해오면서 병원법당 지도 법사를 맡아 환자와 가족을 돌보고 있다. 이 같은 스님의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이 알려지면서 2004년 이명박 시장으로부터 시민대상 봉사상, 광진구민 봉사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불자연예인 김홍국씨는 11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초등학교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김홍국씨는 지난 12월 초등학교 1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원로불자기수 남강수씨에게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얼마 전 김씨는 ‘사랑의 호랑나비 밥차’를 만들어 한 달에 한번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김홍국씨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지만 절에 가면 언제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발원했다”며 “많은 분들의

## 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은 12월 8일 불교계 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동참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깨달음과나눔 대표이사 이매옥 보살은 11년째 매주 일요일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제3차 여성불자108인이기도 한 이매옥 보살은 1999년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던 시절 업무 차 서울 송파구 마천동을 찾았다. 이 보살은 그곳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2001년 무료급식소를 차렸다. 매주 1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급식소를 찾아 2011년 12월까지 10년 동안 5만 2000여 명의 노인에게 점심공양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1명과 독거노인 1명에게 매월 10~20만원 생계비를 지원해오

고 있다.

서울 서원암 주지 반야지 법사는 25년간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소외 이웃들에게 김치를 보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7월과 11월 도봉구 일대와 보천 주민들에게 2만 8000포기의 김치를 보시했다. 또한 서원암은 매주 화요일 300여 명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자비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 2010년에는 반야지 법사가 서울특별시 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반야지 법사는 “불교의 자비심이야말로 무량공덕의 근원이며 수행의 근본이다. 그래서 자비행을 직접 중생들이 행할 수 있게 봉사의 장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inas1983@hyunbul.com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 창원 성주사 불상 등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2월 23일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등 11건을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이날 지정된 보물들은 ▷보물 제1110-2호 정몽주 초상 ▷보물 제1728호 허전 초상 ▷보물 제1729호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보물 제1730호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보물 제1731호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 ▷보물 제1732호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 ▷보물 제1733호 부산 국청사 청동북 ▷보물 제1734호 양산 내원사 청동북 ▷보물 제1735호 양산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 ▷보물 제1736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 ▷보물 제1737호 동산화상육도보살이다.



보물 제1730호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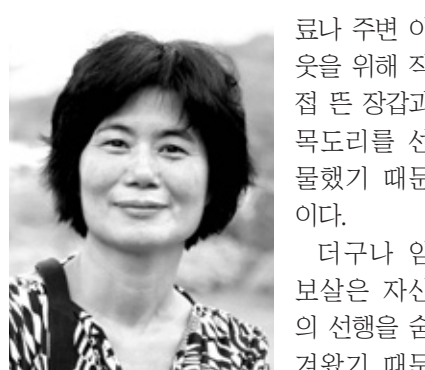
이에 앞선 22일, 문화재청은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 유물’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속초 신흥사 목조지

장보살삼존상’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불조삼경’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14건을 보물 지정 예고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이보다 더한 보살행이 있으랴

남양주 봉영사 신도 임정순 보살  
어려운 형편에도 이웃 사랑 실천  
가방엔 유기견 위한 빵 항상 준비  
사후 장기기증으로 큰 사랑 실천



료나 주변 이웃을 위해 직접 뜯 뜯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 보살은 자신의 선행을 숨겨왔기 때문에

전영완(31)씨는 가난한 형편에 어머니가 구호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못 마땅했다. 도움을 받아도 부족한 살림에 남을 돕는 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전씨는 더 이상 어머니 임정순(53·사진)보살을 원망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가난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살도를 실천해 온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씨는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말할 수 없어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다.

임정순 보살이 12월 17일 오전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임 보살이 평소 실천했던 보살 정신에 따라 장기를 기증, 5명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줬다. 임정순 보살이 기증한 장기는 간과 신장 2개, 각각 2개다.

매일 새벽이면 경기 남양주 봉영사에 예불을 올렸던 임정순 보살은 아간 훈련을 하던 군인들에게 누룽지도 끓여 주고, 봉영사 텃밭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300여 권의 책을 기증하기도 했다.

익명으로 두거 어른들에게 옷과 돈을 수시로 기부해 왔다. 임 보살은 항상 손에 서 털실을 놓지 않았는데, 함께 일하는 동

봉영사에는 평소 임 보살이 식사를 챙겨주던 개와 고양이들이 있다. 이들은 임정순 보살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봉영사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다. 마땅히 보살펴주던 사람이 없던 개와 고양이들은 밥을 챙겨주던 임 보살이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려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전영완씨는 “개와 고양이를 보면서 평소 밥을 챙겨주던 어머니가 떠올라 이제 는 아버지와 함께 이들을 돌보기로 했다.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던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 “젊은이가 쉽게 배우는 불교대학 만들 것”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제3대 이상우 이사장 취임

“젊은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불교를 가르치는 동산불교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재가불자 교육도량인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의 제3대 이사장에 이상우 이사(사진)가 취임했다.

이상우 이사장은 12월 7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취임법회를 통해 제3대 이사장 소임을 시작했다. 이 이사장은 동산불교대학 총학생회장, 붓다클럽 총재,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이사,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뚜렷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상우 이사장은 “젊은 불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동화나 만화로 불자를 편견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

었다. 이상우 이사장은 “동산은 이미 30년 전부터 〈반야심경〉 〈천수경〉을 모두 한글로 봉독해오고 있다. 또한 27년이 넘게 열불 만일회와 니까야독송회를 운영해 열불의 생활화를 이룩했다”며 “이는 동산의 설립 취지인 불교정법의 대중화, 대승불교의 생활화, 한국불교의 정토화에 부합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이사장은 동산불교대학의 대사회 활동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故 김재일 이사장이 계실 때 활발히 진행되던 제3세계 지원사업 같은 대사회활동이 많이 줄었다”며 “불교의 대사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상우 이사장은 “2012년은 동산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라며 “동산불교대학생들이 일 귀농은 성과들을 확고히

하고 재가불자 교육도량으로서의 역할을 굳혀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동산불교대학은 40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학과, 불교다학과, 불교미술학과, 불교한문학과, 사찰음식문화학과에서 모집하며 교육과정은 2년이고 개강은 2012년 2월 4일부터다. (02)732-1206

이나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 BBS 불교방송 노사 한마음 다짐

23일 간담회 열고 공동선언

갈등을 겪던 BBS 불교방송(사장 이재원)과 BBS노조(위원장 장용진)이 12월 23일 노사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상생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대표는 ‘위기극복 위한 불교방송 노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재원 사장은 “노사관계도 불교적 규범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회사는 투명경영과 노조활동 보장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19일, 불교방송이사회(이사장 영남)는 제77차 이사회를 열고 송석구·이용부 이사 후임으로 김윤수·이각범 이사를 선출했다.

조동섭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0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2월 1일까지
- ◆ 개강일시 : 2012년 2월 2일(목요일)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급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 과정

(1) 초·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육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 49계,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회의재바라,
- ◆ 신중작법, 육권이
- ◆ 다계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 교육시간 : 초·중급 - 목요일 오전 10시~1시
-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6시
- ◆ 개강일시 : 2012년 3월 ~ (수시모집가능)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을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